바나나 재배 확산… 유통·판매체계 시급

3개 농가→ 27개 농가… 최근 2년여 사이 빠르게 증가
기술 부족·유통기반 빈약에다 생산 늘며 값하락 우려
농협경제지주, 실무협의회 꾸려 계통판매방안 모색중

제주에서 친환경 바나나 재배농가가 최근 2년여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유통·판매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몇년 새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경남 등 전국으로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유통기반이 빈약하다 보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각자도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제주도농업기술원과 농협 등에 따르면 도내 바나나 재배농가는 27농가로, 연간 생산량이 850t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배지 북상으로 전남 강진과 경남, 경북 등에서도 재배가 시작돼 전국적으로는 40농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에선 2016년까지만 해도 3농가에 그쳤던 바나나 재배가 2017년 17농가에서 2018년에는 27농가로 2년 전부터 빠르게 늘었다. 갈수록 가격이 약세인 한라봉 대신 선택한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품목 전환시 수확까지 3~4년이 걸리는 다른 과수작목과는 달리 30㎝ 크기의 모종을 심어 1년 후면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배를 늘린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바나나 재배는 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체계적인 생육관리 등 재배기술에서부터 후숙처리는 물론 상품화를 위한 표준규격도 없이 농가가 터득해 생산하고, 유통기반도 전무하다시피 해 판로까지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15농가가 제주바나나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 12월부터 전국 롯데마트와 도내 하귀·한림 하나로마트에 일부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 조합의 올해 농가수취가는 ㎏당 4000~4500원으로, 작년보다 500원 떨어졌다.

하지만 소규모 개별농가에선 판로난이 최대 난제로,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경영비 부담에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가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국산바나나의 계통판매 확대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 3월 원예사업부, 농협하나로유통, 공판장, 하나로마트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바나나 유통 활성화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5월에는 제주에서 전국 바나나농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구성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한 계통출하 활성화와 공판장을 통한 학교급식 납품을 모색해 농가에서 생산한 바나나를 최대한 판매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면에서는 농가 기대치와 여전히 괴리감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수입산과 차별화된 친환경 바나나를 재배한다는 자부심에 15년동안 이어왔지만 소득이 따라주지 못해 올해 절반은 접을 생각"이라며 "갑자기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판로난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농가는 "친환경·기능성 바나나 재배에 쏟은 농가의 노고를 감안하면 농협에서 단순하게 값싼 수입산과 가격을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알림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찌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5월 4일 8시 ~ 16시**
▶대 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 스: **제주과학고 입구 ~ 검은기지 ~ 열안지오름 ~ 고사리들판 ~ 메밀밭 ~ 고사리들판 ~ 노리손이오름 ~ 산록도로**
▶집 결 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 비 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4월 23일 ~ 4월 30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 가 비: 1만2천원(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 한라일보사)
▶문 의: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제안로 광령~상가리 구간 내달부터 보수공사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도 1121호선인 제안로 중 아스팔트 포장파손이 심해 도로이용에 불편이 많은 광령리~상가리 구간 6.4㎞에 대해 총사업비 7억5000만원(지방비)을 투입해 5월부터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수공사 구간은 레미콘공장과 골재생산업체가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동절기와 해빙기를 지나면서 포장균열이 가속화돼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포장파손이 심한 구간의 포장층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침하량을 측정해 포트홀 및 러팅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과 기층포장까지 걷어내고 치환하는 등 맞춤형 보수공사를 시행해 포장도로의 성능 개선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안로 보수공사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마라도서 자리돔잡이 22일 국토 최남단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어부들이 봄철 입맛을 돋우는 자리돔을 잡기 위해 풀어 놓았던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불법 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서귀포시 올해말까지 전개

서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읍면동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시민스스로 수준 높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고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은 22일 동홍동을 시작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읍·면·동 사무소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매월 2회 진행될 계획이다.

캠페인에서는 가두 캠페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및 홍보용품 배부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시승,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단속활동을 체험 기회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대규모 채용

서귀포시, 304명 모집 예정

서귀포시가 클린하우스 등 읍면동 생활환경 취약지구에서 일할 60세 이상 참여자를 대규모로 채용한다.

시는 올 하반기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304명을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17개 읍면동에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220명) ▷청결지킴이(78명)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 보조요원(6명) 등 3개 분야로, 근무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결지킴이는 13개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재활용도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고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220명)는 클린하우스, CCTV 관제 보조요원은 읍면동 사무실에 각각 배치된다.

이 사업은 이미 확보된 국비(복권기금) 43억원을 투입해 운영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무자(일일 3~4시간 근무)에게는 시급 9700원과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사업지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제주 수출·수입액 모두 감소

제주지역 수출·수입액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은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한 3499만달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액도 줄어 지난해 동기보다 8% 감소한 8950만 40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로 전체 수출액 36%(1262만 달러)를 점유하고 있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비내구 소비재가 전체 수입액의 28%(2496만6000달러)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상민기자

창간 30주년 since 1989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제주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부회장	허원석	부회장	이애숙	총무위원장	강대원
〃	임철우	〃	이창현	약국위원장	양승화
〃	김경희	총회의장	좌석훈	여약사위원장	고경희
〃	양창국	총회부의장	강은실	보험위원장	김민성
〃	김미향	〃	오지홍	학술위원장	장영수
〃	성길홍	감사	박민선	한약위원장	송근형
〃	오창은	〃	허준	근무약사위원장	홍석중
				병원약사위원장	김윤희

제주시 아봉로 18(아라2동), TEL.755-9525, FAX.757-3428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 모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영배

선임이사	강성철	이사	이창호
이사	김상범	〃	김동오
〃	강대현	〃	노해필
〃	김영주	〃	이이모
〃	한영철	〃	문도열
〃	강승우	감사	김대우
〃	박금배	〃	제용민